

**핵심 6** 거란의 침입과 극복 과정

1차 침입	서희는 거란 장수 소손녕과 담판을 벌여 거란을 물러나게 하였고, 이후 강동 6주에 성을 쌓아 영토를 압록강까지 넓혔음.
2차 침입	고려는 개경이 함락되기도 하였지만, 물러가는 거란군을 양규가 크게 물리쳤음.
3차 침입	강감찬은 전세가 불리해져 후퇴하는 거란군을 추격하여 귀주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음(귀주 대첩).

**핵심 7** 여진의 위협과 극복 과정

- ① 고려와 여진의 관계 : 여진은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섬기다가, 세력을 넓혀 고려의 국경을 자주 위협하였습니다.
- ② 여진 정벌 : 윤관이 별무반이라는 부대를 이끌고 여진을 물리쳤으며, 여진을 몰아내고 차지한 땅에 9개의 성을 쌓고 고려의 영토로 삼았습니다.

**핵심 8** 몽골의 침략과 고려의 저항

## ① 몽골의 침략과 극복

1차 침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려의 군사와 백성들이 귀주성에서 몽골군의 공격을 막아 냈음.</li> <li>• 고려는 도읍을 강화도로 옮기고 몽골과 싸울 준비를 하였음.</li> </ul>
2차 침략	고려 백성들이 처인성에서 크게 승리하였음.
3차 침략	죽주성에서 몽골군을 물리쳤음.

- ② 개경 환도 : 고려는 몽골과 화친을 맺고 몽골의 요구대로 도읍을 다시 개경으로 옮겼습니다.
- ③ 삼별초의 항쟁 : 강화도 → 진도 →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기며 계속 몽골에 항쟁하였으나 결국 진압되었고, 고려는 원의 간섭을 받게 되었습니다.
- ④ 공민왕의 개혁 정책
  - 몽골식 풍습을 버리고 고려의 전통을 되살리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 원이 빼앗은 고려 땅을 되찾아 나라의 힘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